

반도체

중국 불확실성 완화 기대

한국 정부, 미국에 가드레일 조항 완화 요청

— 5월 24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법 가드레일 조항 (미 반도체 법: CHIPS ACT, 보조금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 세부 규정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 반도체 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세부 사항으로는 ①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 및 범용 (legacy) 반도체 등의 명확한 정의를 요구했고, ② 중국 기업과 공동 연구 또는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그림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불확실성 완화 계기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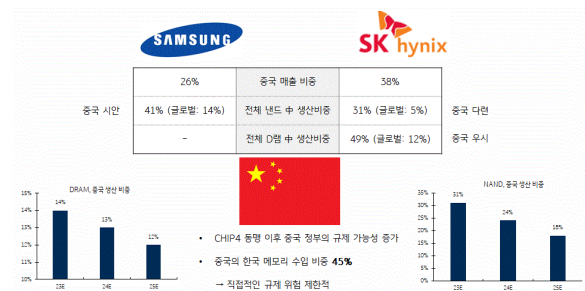
— 지난 5월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장비반입 유예조치 1년 연장 (5/3 Financial Times) 이후 한국 정부의 가드레일 조항 완화 공식 요청과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KSIA)가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특허사용계약의 경우 기술환수 조항의 공동연구에서 제외) 등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 생산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시킬 전망이다. 비록 미국, 중국, 한국 등의 관계에서 정치적 변수는 남아 있지만, 이번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미국 반도체 법 세부 조항을 일부 손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①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확보한 한국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요구를 미국이 일부 수용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고, ② 한국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성 향상이 중국 반도체 업체 (CXMT, YMTC)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그림 1. 미국 반도체 법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항

그림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 현황

CHIPS ACT

- 보조금 수령 시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사용 금지
- 보조금 수령 시 안보 우려 단체와 R&D 참여 제한
-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시 보조금 전액 반환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SK하이닉스]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